

새 봄을 맞지 못한....한 송이....이름 없는.... 들꽃....

김영수 | 출판평론가

이미 남쪽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 솜사탕마냥 몽실몽실 피어올랐고 산수유 꽃도 온 산을 뒤덮었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양지바른 등성이에는 산수유와 개나리가 봉오리를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피지 못할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을 그리워하며 아직 봄 맛을 채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취미나 특기를 적는 빈칸에 뿔뿔하게(?) 독서라고 적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진정으로 책을 사랑한, 아니 책과 일생을 함께 한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은 오직 책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첫 직장을 책방으로 택했다. 수십만 권의 책이 쌓여 있는 책 도매상에서 그 무거운 책의 등짐을 지고, 배달을 하는 등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책과 함께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미소 짓던 미련스런 청년이었다. 자장면으로 겨우 허기를 면하고 서점 창고 구석일망정 매일 책의 삼매경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던 한심한 청년. 검은 빨데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이던 바보 같은 그 청년을 나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내로라하는 큰 출판사들이 꽤 있지만, 1980년대 초반 해도 도토리 키 재기하듯 다들 고만고만하던 시절이 있었다. 출판계에 함께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선배가 후배를 야단치고, 어깨를 두드리며 술잔을 나누던 호시절이었다. 출판사가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독자들이 알아주고, 그 수고에 격려를 잊지 않던 서점인이 있어 그나마 출판할 맛이 나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 유난히 빛이 나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미련한(?) 청년이다. 단행본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출판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원고를 들고 앞 다투어 울산으로 내려갔다. 이유는 단 하나, 그에게 야단을 맞기 위해서였다. 책에 대한 그 청년의 천부적인 감각으로 인해 그가 근무하는 서점은 조연을 구하려는 출판영업인들의 사랑방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고, 그가 육두문자를 써가며 책의 못난 점을 지적해도 웃음으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마음이 통하던 때였다. 그의 충고에 힘입어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때문에 그는 늘 출판계 스카우트 대상 1위에 뽑혔다. 그러나 그는 20여 년 동안 내내 서점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던 그가 3년 전 서점 일을 접고 서울로 상경했다는 것만으로도 출판계에서는 큰 화젯거리가 되었다.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난데없이 출판사를 설립했다. 너무 상업적이고, 표피적인 책들이 난무하는 출판의 현실이 안타까워 서점인의 양식을 갖고 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전해주고 싶다는 소박한 이유에서였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책을 기획하고 만들어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이제 비로소 책다운 책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눈을 반짝인 채 투지를 불태우던 것이 바로 올해 초였다. 그런 그가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도 말이다. 출판계에 그동안 많은 경조사사가 있었지만 그와의 이별은 특별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의 부고는 순식간에 출판계를 놀라게 했고 지방 출장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출판영업인이 빈소를 가득 메웠다. 그가 장지로 떠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던 많은 출판인과 형제를 잃은 듯 대성통곡하던 후배들을 보며 나는 그가 부러웠다. 아니 묘한 질투심마저 일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질투할 자격이 없었다. 그의 책에 대한 지독한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때늦은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던 날 우리 곁을 떠났다. 활짝 피어보지도 못한 채, 봄이 오기도 전에 서둘러 우리 곁을 떠났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가 살아생전에 쏟아내던 책에 관한 질타를 출판의 죽비삼아 영원히 그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 한 송이 이름 없는 꽃은 <바움> 출판사의 이창훈이라는, 아주 미련한 청년이다. **추천**